

현대 여성의 T-팬티 조형성 연구  
-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

양 아 랑\* · 이 효 진†  
전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의류학전공\*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T-Panty Formativeness of the Contemporary Women's  
- Focused on the Domestic Market -

A-Rang Yang\* and Hyo-Ji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9. 4. 29. 접수일 : 2009. 9. 14. 수정완료일 : 2009. 10. 7. 게재확정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ntemporary women's sense of fashion aesthetic by looking into the design and trend of T-panties, which have now carved out a new niche in the world's 21st century female underwear markets. By this, I'd like to reassure readers of the importance of T-panties, which has only been recently recognized, and more generall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prominent T-panty design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ntemporary women's sense of fashion aesthetic by looking into the design and trend of T-panties, which have now carved out a new niche in the world's 21st century female underwear markets. By this, I'd like to reassure readers of the importance of T-panties, which has only been recently recognized, and more generall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prominent T-panty design development. The domestic formativeness of all styles is divided into three types: modern feminine, mono-bosom, and utopian narcissist image. This study is based on the documents study.

*Key words: T-panty(T-팬티), modern feminine image(모던 페미닌 이미지), mono-bosom image(모노보섬 이미지), utopian narcissism image(이상적 나르시시즘 이미지).*

I. 서 론

속옷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겉옷의 내부에 착용하는 의류로 몸에 직접 착용하는 옷의 총칭이며, 흔히 간단하게 내의라고도 한다. 속옷은 신체를 가리는 것

으로 미적 표현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겉옷의 변천과 더불어 패션으로 발전하였으며, 위생이라는 기본 목적 외에 시대적으로 옷의 유행과 미에 대한 관념 및 사회문화적 혹은 민속적 풍습 등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되었다<sup>1)</sup>.

따라서 속옷의 형태와 기능을 통해 그 사회의 미

† 교신저자 E-mail : curiously@naver.com

1) 최원, “서양 여성 속옷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3.

의식과 도덕의식을 유추해낼 수 있으며, 착용 관행을 통해서 남녀의 역할과 지위, 사회체제, 관습 등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다. 속옷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겉옷에 비해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던 의류 중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속옷은 남성용보다는 여성용 속옷이 디자인과 종류가 훨씬 많고, 상의에 비해 하의가 더 다양하게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여성용 속옷은 체형을 보정하는 것과 위생적인 부분, 장식적인 부분을 보완한 실루엣으로 변화해 왔다. 이와 같이 속옷의 기능이 변화되면서 인체 착용 부위의 노출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형태의 단순화와 더불어 디자인의 장식화로 색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속옷 시장에서 속옷은 브라, 팬티 등의 종류 정도에 그쳤었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패션으로 아이템이 다양화되고, 그 착용법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대담해졌으며 노출 부위가 많아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 T-팬티(T-panty)로 서양에서 가장 많이 수용되어지고, 동양의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받아들여지면서 세계적으로 T-팬티가 나타나고 있다.

T-팬티를 착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게 하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과 팬티의 자국이 겉옷으로 드러나지 않아 옷맵시를 살려주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드러내 자신만의 개성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T-팬티는 그 종류가 월등히 많아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이 개발되면서 몸에 밀착되고, 더욱 더 팬티의 길이와 소재의 중량 등이 작아지면서 미니화, 경량화 등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패션 아이템으로 문화의 금기를 깨고 겉옷 안으로 보이게 입을으로써 속옷의 겉옷화와 노출의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한 에로틱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팬티는 제 2의 피부라 불릴 만큼 인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팬티의 아이템 특성상 관능검사를 필요로 하는 기능적이고 미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T-팬티의 경우 한정된 연령과 전문적인 분야의 여성들에게 많이 착용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T-팬티의 특성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T-팬티라는 아이템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기능성과 더불어 현대 여성들의 미의식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디자인되고 있는 T-팬티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21세기 들어 국내의 속옷 시장에 새로운 분야를 구축해 가고 있는 T-팬티 현황과 디자인을 알아보고 조형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여성들의 미의식을 고찰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T-팬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쟁력 있는 T-팬티 디자인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팬티 디자인의 발상과 현대 여성의 미적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속옷 산업 현장에서 상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의의를 둔다.

연구 진행을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과 실물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문헌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서적, 연구 논문과 국내 패션잡지,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물 자료 분석으로는 국내 판매되는 T-팬티를 직접 구매하여 실물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 T-팬티의 조형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선정하기 위해 속옷 시장 현황을 고찰하였고, 국내 속옷 시장에서 T-팬티가 시즌마다 2~3개의 새로운 디자인이 출시되기 때문에 1위에서 20위권 내의 브랜드에서 출시된 2008년 S/S, F/W 시즌 T-팬티를 직접 구매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T-팬티가 서양 하의 속옷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서양 속옷, 그 중에서도 하의 속옷으로 한정하였다. 국내의 T-팬티의 경우, 국외 유명 브랜드들의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외 자료를 함께 다루었다.

시대적 범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T-팬티를 판매하는 국내외 속옷류의 브랜드와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속옷의 일반적 고찰

팬티는 고대부터 구체적인 의류 아이템으로서 발달되어온 것이 아니라 속옷의 범주 속에서 발달되었

기 때문에 T-팬티에 대한 변천과 디자인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전반적인 속옷의 개념과 기원, 변천과 종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대별로 팬티의 역할을 하였던 아이템에 대해 중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 1) 속옷의 개념과 변천

속옷(innerwear)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겉옷의 내부에 착용하는 피부에 직접 닿는 의복으로 ‘언더 클로스(undercloth)’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겉옷(outerwear)의 가장 안에 착용하는 의상 전반을 의미한다<sup>2)</sup>. 또한, 속옷은 외부로부터의 보온을 도모하고 피부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실용적인 옷을 말하며<sup>3)</sup>, 자기 자신의 피부나 육체에 직접 착용하는 의류의 총칭으로 ‘내의’라고도 한다고 정의하였다<sup>4)</sup>.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속옷은 피부에 직접 닿아 땀을 흡수하고 보온을 하는 위생적인 기능과 체형의 단점을 커버하고 겉옷의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미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일반적으로 속옷의 기원에 대해서는 구약성서 창세기의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서로의 육체에 대한 차이로 인해 느낀 수치심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허리를 줄라때는 요의 형태인 생식기를 덮개로 가린 것이 속옷의 시작이었다는 창세기 기원설이 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속옷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어 양성의 구분으로 인해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입기 시작했다는 이성 흡인설이 있다<sup>5)</sup>.

그런가 하면 속옷의 기원을 남미의 나체족이 성인 예식 때 허리에 두른 가는 허리띠가 속옷의 출발점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남자들은 사냥에서 잡은 동물의 가죽이나 뿔 등을 몸에 치장하여 용맹스러움을

과시하기 위해 그리고 여자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속옷을 입었다<sup>6)</sup>는 주장도 있다.

속옷의 기원에서 알 수 있듯이 팬티는 창세기 무화과 잎을 최초의 속옷으로 보기도 하지만 현대 속옷의 개념이 아닌 몸에 걸친 유일한 옷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팬티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가설로 고대 로마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에 T자형 띠를 하고 세척하여 사용하곤 하였는데, 이 T자형 띠가 팬티의 기원이라는 T자형 띠 기원설<sup>7)</sup>과 스트립쇼에서 스트립 걸들이 최후에 마지막으로 걸어내는 작은 천조각의 이름인 버터플라이(butterfly)에서 기원했다는 버터플라이 기원설이 있다<sup>8)</sup>.

서양 복식사에서 볼 때, 고대의 속옷은 겉옷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그 형태나 착용법이 간단하였다. 이집트에서는 의복이 남성들은 활동적인데 비해 여성들은 비활동적으로 몸에 꼭 끼도록 입었는데, 허리에 간단하게 둘러 입는 뜻의 요의가 있었다. 요의는 인간이 최초로 입기 시작한 의복 형태로, 폭이 좁은 천을 허리에 두를 때 처음 자락이 양 다리 사이로 지나가게 하여 마치 속에 짧은 팬티를 입은 것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sup>9)</sup>.

중세에는 종교의 금욕주의에 인해서 속옷 노출이 거의 없이 신체 보호 및 위생적인 실용적 기능이 중시되었다. 그래서 위생성이 강한 속옷 중심으로 맨살에 입는 언더웨어가 착용되었고 부분적인 노출 부위의 장식이 특징이다. 중세 후기에 들어 겉옷의 계층 및 남녀의 성적 구별이 명확해짐에 따라 속옷에도 성적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다<sup>10)</sup>. 대표적인 예로 린넨이나 얇은 모직으로 만든 튜닉형의 속옷인 셰앵즈(chainse), 코르셋 역할을 하는 코르사쥬(corsage) 등이 있었다. 13세기 새 재단법으로 고안되어 셰앵즈는 슈미즈(chemise)로 불렸으며,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길고 좁은

2) 라사라 교육개발원, *복식사전*, (서울: 라사라(라사라 패션 정보), 1991), p. 546.

3) 한명숙, “복식명칭의 화용론적 연구(II) -속옷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5권 1호 (1997), p. 57.

4) “속옷의 정의,” *삼성디자인넷* [2008년 8월 4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amsungdesign.net

5) 이상례,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겉옷화 현상,” *복식* 35권 1호 (1997), p. 328.

6) “속옷의 기원,” *삼성디자인넷* [2008년 8월 4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amsungdesign.net

7) “팬티의 기원,” [2008년 6월 17일];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lavora.co.kr/hosto1.html

8) 공미란, *이너웨어 디자인*, (서울: 경춘사, 2006), p. 12.

9) 이의정, 김소영, *언더웨어*, (서울: 교학연구사, 2001), p. 8.

10) 김주애, 이연희, “중세 남녀 속옷의 특성,” *복식문화연구* (2003), p. 273.

소매, 혈렁한 스커트로 금실이나 색실로 자수를 놓거나 레이스로 장식하였고 몸에 맞았다<sup>11)</sup>.

근세 속옷은 언더웨어와 보정용 웨어, 장식용 내의가 있었고, 그 중 특히 보정용이 발달하여 인체를 크게 왜곡시켰으며, 신체 보정성이 강한 기능에 따라 종류별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근세는 15,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 바로크 시대, 18세기 로코코 시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기본 속옷인 슈미즈와 풍성한 모양의 속바지인 언더니커즈(under-knickers)를 러플 칼라 등으로 장식하여 인체를 강조하고 실루엣을 과장하는 르네상스 양식이 나타났다. 바로크 시대에는 언더웨어로 슈미즈와 드로워즈(drawers)가 있었고, 로코코 시대에는 바로크 시대의 언더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8세기에 들어서야 영국의 여성들은 팬티의 기원인 드로워즈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근세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현대 팬티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드로워즈의 등장이었다. 이탈리아의 부인들이 가운 밑에 린넨이나 실크 바지로 입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상류사회에서 말을 탈 때 착용하였다<sup>12)</sup>.

근대에는 언더웨어, 보정용, 장식용 중에 장식용이 크게 발달하여 활동성 위주의 구성이 발달하고 기능이 복합된 디자인이 나타나 현대 속옷이 발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근대는 크게 19세기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9세기 전기는 속옷의 보정 기능이 되살아나고 슈미즈와 드로워즈, 팬탈론(pantaloon) 등의 속옷과 코르셋과 페티코트, 언더스커트, 나이트 클로스 등이 나타났다. 19세기 후기에는 로맨틱 스타일에 나타났던 속옷들이 나타나면서 크리놀린과 머슬 시대에 맞게 실루엣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속옷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지면서 의복의 착의와 탈의도 복잡해졌다. 그에 따라 뒤에 버튼이 있는 무릎에 주름을 잡은 형태인 니커보커즈(knickerbockers)와 드로우즈, 앞여밈의 증가 등 새로운 의복의 개발로 인해 잠금장치의 연결방법이 숙달되게 되었다.

근대에 와서 드로워즈는 크게 변화하였다. 대표적인 드로워즈의 형태는 벨트가 있고 뒤 허리에 끈으로 매어 입게 되었으며, 가랑이는 직선이면서 통처럼 넓게 퍼진 선으로 무릎 아래에서 약간의 주름을 잡아 밴드로 처리하였다. 또한 흰색 머슬린 가운 속에 열은 속치마를 입어서 겉에 비치게 하였다. 크리놀린이 유행한 후 일반화되면서 1870년까지는 밑이 트여 있는 형태였으나 후반부터는 막히게 되었으며 길이는 무릎 정도였다<sup>13)</sup>.

현대에는 속옷의 개념이 변화되면서 노출 부위가 많아졌고, 보정용 속옷은 자연스럽게 간단한 형태로 변했으며, 장식용 속옷은 색과 형태가 다양해졌다.

1900년대 여성의 운동에 대한 열망은 드로워즈의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허리 뒷부분은 연결되고 앞부분에는 여밈이 있는 긴 드로워즈가 보편화되었으며, 웨이스트라인에 작은 턱이 있고 다리부분에 많은 레이스와 프릴로 장식된 새틴 드로워즈가 나타났다<sup>14)</sup>.

1910년대에는 무(gusset)가 달려 있어 발을 집어넣어 입는 형태이거나 버튼이 부착된 뚜껑이 있는 가랑이가 이어진 형태의 캐미니커즈(camiknickers)가 소개되었다. 1920년대의 드로워즈는 슬림하고 허리와 무릎을 고무사로 조이고 소재는 고급 무명, 캘리코, 트윌, 플란넬 등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니커즈로 변하였고, 1930년대는 니커즈가 점점 짧아져서 팬티가 되었다. 이와 같은 1930년대 후반 팬티의 등장으로 20세기 하의 속옷은 전반과 중·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

1940년대 팬티는 더 짧아지고 몸에 밀착되었으며, 1946년경 비키니 스타일의 브리프를 남녀 모두 착용하였다<sup>15)</sup>. 제 1·2차 세계대전 후에 비실용적인 페티코트는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주름이 없는 홀쭉한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속옷이 복부 전체가 아닌 최소한의 생식기 부분만을 덮는 것이 되었다.

11) “서양속옷 중세,” *삼성디자인넷* [2008년 7월 1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amsungdesign.net> 공미란, op. cit., p. 17.

12) 이정옥,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9), p. 232.

13) 공미란, op. cit., pp. 20-29.

14) 공미란, op. cit., pp. 35-36.

15) 이의정, 김소영, op. cit., p. 88.

1950년대 꽃 자수, 금실, 모조 다이아몬드 장식과 팬티를 다른 아이템의 소재와 색, 디자인을 조화시켜서 속옷을 이용한 코디네이트가 나타났다. 또한 1960년대 강한 신축성과 탄성을 지닌 라이크라 소재의 개발로 인해 속옷의 여밈과 솔기 뼈대가 사라져 더 가볍고 자유로워졌다. 1970년대 속옷 영역은 백색의 개념에서 색과 무늬가 도입된 유색화 경향으로 패션이 되었다. 또한 타이트한 진과 힙스터(hipster)의 유행으로 로우 레그 팬티(low leg panty; 현대의 드로워즈)의 착용이 늘어났다<sup>16)</sup>.

1980년대의 속옷은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는 페미니즘과 연결되어 속옷을 개성 표출의 한 방식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언더웨어 컬렉션을 선보였으며, 1988년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팝스타 마돈나(Madonna Louise Veronica Ciccone)의 의상을 디자인함으로써 속옷의 걸음화를 유도하여 란제리 룩을 유행시켰다.

1990년대에는 바지 안에 입을 드로워즈, 블루머 등이 등장하였으며, 팬티의 아이템, 색, 디자인의 다양화되었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팬티는 짧은 길이의 하반신용 속옷이며,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고 정의하였다. 21세기 팬티는 모드의 변화가 다양하고 신속해짐에 따라 소재나 색상, 형태나 기능상으로 복합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실루엣의 변천에 따라 기능은 여전히 여성들의 의식이 변하고 사회적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몸을 덮는 부분이 축소되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장식이 많거나 혹은 기능성을 요구하는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팬티의 종류 및 특징

팬티는 속옷의 종류에서 짧은 길이의 하반신용 속옷을 의미한다. 형태에 따라 사각 팬티, 삼각 팬티, 브론즈 등으로 구분되며 면을 사용한다<sup>17)</sup>.

팬티의 종류는 여성용 팬티 종류로 숏츠, 드로워즈로 나눌 수 있는데, 연구 내용의 이해를 높이기 위

해 팬티 종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 (1) 숏츠(Shorts)

숏츠는 여성과 어린이의 속바지의 약칭으로 아래 가랑이가 거의 없는 피부에 직접 닿는 가장 기초적인 하반신용 속옷이다. 1930년대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는 다리가 모두 드러나도록 디자인되었다. 레이스, 리본, 자수 등으로 장식되고 쇼츠(shorts)라고도 한다<sup>18)</sup>.

짧은, 간단한이라는 뜻으로 숏 팬츠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속옷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류의 팬티류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팬티의 종류를 살펴보면, 팬티의 뒤판이 없이 끈으로 처리된 것으로 패션화된 것을 의미하는 티 팬티, 팬티 상단의 끝 부위인 팬티의 앞선이 허리에서 10cm 정도 내려오는 비키니 팬티(bikini-panty), 부인 및 비만 체형을 위해 착용시 편안함을 제일로 하는 브리이프 스타일로 모티브나 레이스로 감각을 준 스타일인 비어 미세스 팬티(bear mrs-panty), 몸에 꼭 맞고 편안함과 기능 위주의 팬티로서 면 스판 소재가 대부분인 가장 대중적인 에스 팬티(S-panty), 탄력성이 강한 소재로 방수 원단을 살(crotch) 부분에 사용한 기능 위주의 위생 팬티(sanitary)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다리 부분이 붙은 긴 롱 숏츠부터 매우 짧은 비키니 숏츠, 그보다 약간 깊은 세미 비키니 숏츠 등 변화가 다양하게 전개되며, 소재로는 면 메리야스, 나일론, 레이온, 견 등이 쓰이고 자수, 레이스, 리본 등을 장식하였다<sup>19)</sup>.

티 팬티는 이 숏츠의 종류에 속한다. 밑위가 짧은 스판 소재의 청바지를 입을 때 팬티 길이가 짧은 것을 착용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으면서 T자형으로 생긴 팬티를 착용하며, 통이 넓은 핫팬츠를 입을 때 역시 앉았을 때 속이 들여다 보일 위험이 있으므로 티 팬티를 입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2) 드로워즈(Drawers)

드로워즈는 남녀 모두에게 입혀지며, 일반적으로

16) 이의정, 김소영, op. cit., p. 90

17) “팬티,” 위키백과 [2008년 8월 2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krdic.naver.com

18) 한명숙, “속옷 착용에 따른 전통복식의 실루엣에 관한 연구,” *패션논집* 22집 (2003).

19) 이상례, “속옷미학,” *복식* 52권 1호 (2002), p. 171.

많이 입는 팬티의 종류인 슛츠보다 다리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옆선이 긴 바지형으로 된 헐렁한 하의이다. 보온과 흡습성이 주된 목적이며, 길이는 여러 가지가 있다.

팬티의 기원인 드로워즈는 브레(braies)란 이름으로 12세기 후반 경부터 남자들에게 속옷으로 입혀진 것이 시초이며 여성을 위한 드로워즈는 17세기경에 프랑스 여성이 입기 시작한 반바지 형식의 짧은 속바지를 의미하였다. 근대 낭만주의 시대에 여성들의 승마가 유행하면서 바지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크리놀린 밑에 있는 드로워즈가 크게 보급되었다. 1870년까지는 밑이 트여 있었으나 그 이후 밑이 막힌 형으로 변화되어 19세기 이후에 여성용 속옷으로 일반화되었으며, 1910년 이후 몸에 꼭 맞는 스타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sup>20)</sup>.

1970년대 유행한 타이트한 진과 힙스터는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슛츠를 입었을 때 오히려 더 팬티 라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한 이유로 밀착된 바지를 입을 때 드로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드로워즈는 꾸준히 생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로워즈가 여자 전용의 무릎길이의 속바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여 팬티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1세기의 드로워즈는 실용적이고 위생적인 기능으로 변화되었으며, 미적 기능으로 몸에 꼭 맞게 입는 청바지나 스커트에 입음으로서 겉으로 팬티 라인이 들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본래 헐렁한 형태였던 드로워즈가 몸에 꼭 달라붙는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 이렇듯 드로워즈의 모습은 헐렁한 것과 몸에 꼭 맞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T-팬티의 종류 및 특징**

T-팬티는 팬티의 종류 중 슛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팬티의 뒤편이 없이 끈으로 처리된 것으로 패션화된 것을 의미한다<sup>21)</sup>. 팬티의 뒤 라인이 T자형이라는 데

서 유래된 이름이다. 로우 라이즈(low-rise) 팬티 라인이 유행하면서 뒤 허리 라인으로 나오는 T-panty의 T 라인은 섹시함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티 팬티의 종류는 디자인에 따라 Thong, G-string, V-str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의 Thong은 시각적인 이름을 따서 불리우며, T-back 또는 T-팬티라고 하며, 엉덩이가 거의



<그림 1> Thong.



<그림 2> G-string.



<그림 3> V-string.

20) 공미란, op. cit., pp. 73-74.

21) 공미란, op. cit., p. 70.

“티 팬티,” *국어사전*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 2004). [2008년 8월 1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krdic.naver.com>

드러나는 타입으로 팬티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타이 트한 바지를 입을 때 착용할 수 있는 팬티이다.

〈그림 2〉의 G-string은 바이올린의 줄을 부르는 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팬티의 허리라인은 가는 끈으로 만들어지며, 뒷모습은 끈의 형태로 마치 팬티를 착용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림 3〉은 V-string으로 G-string과 뒷부분이 V자 모양의 삼각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다른 점이다.

### III. 국내 T-팬티 현황 및 디자인

#### 1. 국내 T-팬티 현황

국내 속옷 시장은 메리야스 기업이 주축을 이뤘던 시장 판도가 라제리 기업 성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브랜드 「비비안」, 「비너스」, 「(주)좋은사람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팬티의 경우, 기존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디자인에 중점을 둔 라제리 업체인 「비너스」와 「비비안」은 물론이고, 메리야스 기업이라 일컫는 「쌍방울」과 「비와이씨」에서도 활동성이 좋은 기능적인 종류로 생산되고 있다.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들로부터 새롭고 다양한 패션 속옷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T-팬티이다. 1980년대 후반 해외 속옷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국내에서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 아이템들이 들어왔는데 T-팬티와 가터 벨트(garter belt)와 같은 아이템들이었다.

국내 브랜드의 경우, T-팬티는 「(주)좋은사람들」의 「보디가드」에서 1995년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주)좋은사람들」의 「제임스 딘」, 「예스」, 「슈가프리」, 「섹시 쿠키」 등 모든 브랜드에서 T-팬티가 시판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2005년 이후에 개설된 ‘T-팬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카페(<http://cafe.daum.net/ccyulim313>)’, 국내외 T-팬티 갤러리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T-팬티 카페(<http://cafe.daum.net/tpants>)’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T-팬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는 2008년 10월 34곳이 있었다.

국내의 브랜드에서 T-팬티가 필수로 보여지고 있으며, 섹시한 스타일뿐 아니라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도 보여져서 일반 팬티처럼 선호하는 층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매장을 늘리고 있으며, 「빅토리아 시크릿」과 「캘빈 클라인」과 같은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온라인, 각종 쇼핑몰, 컬렉션으로 다양하게 영역이 확장하고 있다.

서양은 남녀 모두에게서 T-팬티의 선호도가 높이나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들에게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몇몇의 남성용 T-팬티 디자인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국내의 T-팬티 디자인은 속옷 시장의 현황에서 알아본 시장 점유율을 고찰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시장에서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회사의 브랜드들의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신영 와코루」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T-팬티 디자인의 「비너스」, 「슈 비너스(Chou Venus)」와 강렬한 색과 디자인으로 섹시하고 신비한 이미지의 「오르화(Orifa)」, 20대를 대상으로 2005년 새롭게 런칭한 발랄하고 산뜻하며 로맨틱한 이미지의 「핑크 비너스(Pink Venus)」로 나타나고 있다.

「(주)좋은사람들」의 경우, 팬티 트렌드와 가격, 타겟에 따라 6개의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데, 트렌드 반영을 많이 하는 브랜드가 가격과 타겟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비례한다고 나타났다. T-팬티 디자인은 트렌드, 가격, 타겟이 높은 순서로 살펴보았다. 「섹시 쿠키(Sexy Cookie)」의 T-팬티 디자인은 블랙과 핑크를 주요색으로 그리고 그린, 퍼플, 브라운의 색을 강조하는데 사용하고, 로맨틱을 강조한 섹시하고 멋지고 맵시 있는 겉옷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컨셉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디가드」는 감각과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컨셉으로, 「제임스 딘(James Dean)」은 개성 강한 패션 마인드를 지양하는 브랜드로서 심플함을 강조하고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섹시함을 나타내는 유니섹스 스타일을 추구하며 절제된 색과 디자인, 소재의 차별화로 최상의 착용감을 준다는 컨셉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스(Yes)」는 19~25세를 겨냥한 화사한 파스텔 톤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유행에 민감한 세대의 감성에 맞도록 젊은 느낌, 튀는 개성을 컨셉으로 디자인

이 나타나고 있다.

「남영L&F」는 타깃에 따라 11개의 속옷 브랜드를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T-팬티를 디자인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살펴보면, 「블루 비비(Blue Vivi)」는 20세 전후의 여성을 타깃으로 파스텔 계열의 색과 심플하고 귀여운 디자인이 특징이며, 시원하고 밝은 느낌이다. 「비비안(Vivien)」과 「로즈버드(Rosebud)」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우아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으로 개성 있는 멋을 표현하였다.

「이랜드(태창)」의 「헌트 이너웨어(Hunt Innerwear)」는 부드러운 소재와 도트와 프릴 장식이 있는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더 데이 언더웨어(The Day Underwear)」는 현대적인 색조합과 로맨틱함을 컨셉으로 20~30대를 대상으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바디 팝(Body Pop)」은 10대부터 20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으로 알록달록 무지개 빛 이미지로 별, 달, 사탕, 하트 프린트, 반짝이 장식이 나타나는 유패하고 귀여운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 VI. T-팬티에 나타난 조형성

국내의 속옷 시장을 고찰하여, 판매율이 높은 속옷 브랜드의 컨셉에 따른 T-팬티 디자인을 파악함으로써 T-팬티 디자인에 나타난 T-팬티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 1. 국내의 T-팬티 조형성

국내의 T-팬티 조형성은 모던 페미닌, 모노보즘 이미지, 이상적 나르시시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 1) 모던 페미닌 이미지(Modern Feminine Image)

모던 페미닌은 모던(Modern)의 ‘현대의’라는 뜻과 페미닌(Feminine)의 ‘여성스러운’의 뜻이 결합하여 현대의 여성스러운 섬세함과 부드러움 등을 표현한 패션 이미지이다<sup>22)</sup>.

패션에 나타난 모던한 이미지는 여분의 장식을 생략하고 간결한 마무리선을 살린 것이 특징으로 색은

블랙과 화이트의 모노톤이 중심을 이루며, 소재도 뽀뽀한 느낌이 있는 것, 가죽, 금속 감각의 것들이 사용된다. 무늬의 경우 단순한 줄무늬나 추상적인 세련된 느낌이 모던한 이미지를 준다<sup>23)</sup>.

패션에서 말하는 페미닌 이미지는 여자다운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둥근 어깨선, 부푼 가슴, 가는 허리 등 여성의 아름다움을 살린 스타일을 의미한다<sup>24)</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국내의 티 팬티에 나타나는 모던 페미닌 이미지는 멋스러운 현대적인 감각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성스런 감각을 더한 이미지로 고찰하였다.

모던 페미닌 이미지로 나타난 T-팬티의 형태는 Thong이 가장 많은 종류가 나타났다. 소재는 기능성 소재, 라이크라, 면과 스판덱스의 혼방 소재,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의 혼방소재 등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의 경우, 꽃무늬, 줄무늬 소재, 색은 노랑, 분홍, 장식은 레이스, 리본, 비즈 등의 장식이 모던 페미닌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4〉는 「(주) 신영 와코루」의 브랜드 「슈 비너스」의 2007년 4월 출시된 T-팬티이다. 현대 여성을 위한 새로운 감각의 T-팬티로 가장 기본적인 Thong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신축성이 좋고 몸에 꼭 맞는 기능성 소재로 만든 것이다. 색은 로맨틱한 감각의 노란색에 꽃무늬가 있으며, 레이스로 프릴 장식을 하였다. T-팬티의 실루엣과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현대의 실용적인 감각과 색, 무늬, 장식이 있어서 사랑스러운 페미닌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5〉는 「(주) 이랜드 월드」의 브랜드 「헌트 이너웨어」의 2007년 3월 출시된 T-팬티다. 실루엣은 Thong이고, 신축성이 큰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핑크색에 노란색과 흰색의 줄무늬와 꽃무늬가 있고, 허리밴드의 다리부분에 닿는 부분은 넓고 안이 비치는 트레이스가 쓰였다. 이 T-팬티의 경우 작은 꽃 모티프를 줄무늬와 같이 배열돼 있으면서 배경과 유사 조화를 이루면서 전반적으로 온화한 느낌과 핑크색의 달콤한 페미닌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또한 단

22) 조규화, 구인숙, 금기숙,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1995), p. 626.

23) “페미닌 룩,” *쿠어사전* [2008년 10월 21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krdic.naver.com>

24) “페미닌 룩,” *쿠어사전* [2008년 10월 21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krdic.naver.com>





〈그림 4〉 Chou Venus, (주) 신영 와코루.



〈그림 5〉 Hunt innerwear, (주)이랜드 월드.



〈그림 6〉 The Day under-wear, (주) 이랜드 월드.



〈그림 7〉 Impression, (주) 아이엠피 코리아.

순한 실루엣과 장식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줄무늬가 있어서 모던한 이미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 2) 모노보섬 이미지(Mono-Bosom Image)

모노보섬이란, 사전적 의미는 ‘단적인’, ‘단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Mono’라는 단어와 가슴, 유방의 관능적인 인체를 의미하는 ‘Bosom’이 결합한 것이다. 르네상스의 여성 인질드. 나타난 인체 곡선 인표현을 모노보섬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가슴둘레와 거의 같은 허리둘레, 크고 넓은 엉덩이 둘레에 대한 여성 이미지는 자연의 이상화와 더불어 인간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체의 관능에 몰입한 결과 형이하학적인 인체 부위, 즉 엉덩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sup>25)</sup>.

따라서 모노보섬 이미지는 국내의 T-팬티에서 나타나는 엉덩이의 관능적인 이미지와 인체 곡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경향으로 고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T-팬티의 경우 앞모습보다는 엉덩이가 들어나는 뒷모습에 따라 형태가 나뉘는 것처럼 모노보섬 이미지에 제격인 아이템이다.

모노보섬 이미지가 나타나는 T-팬티의 형태는 G-string, V-string이다. 소재는 시스루, 호피 무늬, 지브라(zebra) 패턴 소재, 색은 검정, 빨강, 장식은 브레이드(braid), 망사 레이스 등의 조형요소들이 더욱 비중 있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 6〉은 「(주) 이랜드월드」의 브랜드 「더 데이 언더웨어」에서 2007년 3월 출시된 T-팬티이다. V-string의 형태로 소재는 앞판은 호피 무늬의 프린트 원단을 얇은 망사를 한 겹 겹친 것이고, 뒷판은 망사로만 이루어져 뒷모습은 안이 들여다 보인다. 색은

검정색을 사용하였고, 하트모양의 작은 장식과 허리 밴드를 양 옆에서 묶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밈의 역할을 하는 양 옆의 묶는 끈과 망사로만 이루어진 뒷판으로 인해 시선이 엉덩이 쪽으로 모아지는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그림 7〉은 「(주) 아이엠피 코리아」의 브랜드 「인프레션(Impression)」에서 2008년 1월 출시된 T-팬티이다. Thong 형태로 호피 무늬에 반짝이가 부착되어 있는 화려한 소재에 허리 밴드의 양쪽 옆에 늘어나는 브레이드라 묶은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 색은 베이지 바탕에 갈색톤 내에서 색의 변화가 있는 여러 색이 나타나고 반짝이는 붉은색으로 시선을 모아주는 효과를 준다. 장식은 허리밴드의 브레이드와 팬티 전체의 테두리에 얇은 레이스가 나타나고 있다.

## 3) 이상적 나르시시즘 이미지(Utopia Narcissism Image)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상향, 이상적이다’는 의미의 유토피아(Utopia)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을 의미하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결합시킨 것이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이라는 용어로 희랍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라는 인물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러나 나르시시즘이 학문적인 용어로 쓰이게 된 것은 19세기 자신의 몸을 마치 성적 대상을 대하듯 하는 사람들의 태도, 즉 성적 만족을 느낄 때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쓰다듬고 애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칭해서 심리학과 정신병리학의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sup>26)</sup>.

이와 같이 자신의 인체를 노출시키거나 장식하거나 하여 보여주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신체를

25) 김민자, *복식미 옛보기 복식미학강의2*, (서울: 교문사, 2004), p. 69.

26) Freud, 윤희기, 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프로이트 전집 11*, (서울: 열린책들, 2004), p. 45.

사랑하는 방법의 한 가지 표현으로써 자신의 몸이 아름답다고 느낌과 동시에 남들에게서 자신의 아름다움도 인정받는 나르시시즘으로 볼 수 있다.

이성간의 보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성적 욕구 이외에 인간의 자기도취적인 나르시시즘 속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여지기를 원하는 성적 욕구를 유발한다고 한다<sup>2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 나르시시즘은 여성들이 옷으로 치장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허영심을 충족하여 자기 자신의 이상적인 욕구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T-팬티의 경우, 이러한 나르시시즘을 충족시켜 주며 반영한 옷으로 대표적이다. T-팬티 중에서 나르시시즘 이미지가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 신비로운 색상, 하늘거리며 반짝이는 소재와 스팅글 자수 등의 고급스러운 장식 등을 내세우고 있어 유토피아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수, 우리나라 전통 복식인 한복의 소재, 색 등이 접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드러내는 조형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상적 나르시시즘 이미지가 나타나는 T-팬티의 형태는 Thong, G-string, V-string이 모두 다양하게 있다. 색은 빨강색과 검정색의 강렬한 색상과 고급스러운 깊이 있는 디프 톤의 색들이 사용되었고, 소재는 쉬폰, 조젯(georgette), 툴레이스와 같은 소재가 나타나고, 레이스, 비즈, 스팅글 등 다양한 장식으로 꾸며진 화려한 것들이다.

〈그림 8〉은 「(주) 좋은사람들」의 브랜드 「제임스딘」에서 2008년 3월에 출시된 T-팬티다. V-string의 형태로 화려한 무늬와 색상으로 된 시스루 쉬폰 소재이다. 특히 허리밴드 부분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드레이퍼리로 가벼우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더불어 몸판의 전체적으로 금색 반짝이가 뿌려진 듯한 효과가 있어 고급스러워 보인다.

〈그림 9〉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티 팬티」에서 2008년 6월 판매한 T-팬티이다. G-string 실루엣에 잘 늘어나는 스팅과 쉬폰을 소재로 사용하였고, 허리 밴드는 은색 반짝이는 밴드와 리본이 장식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장식은 겉옷의 밖으로 노출이 되어도 속옷 같지



〈그림 8〉 James Dean, (주) 〈그림 9〉 tpanty.com, 인터넷 좋은사람들. 넷 쇼핑몰.

않은 느낌을 주고 의도적인 노출로 나르시시즘 이미지의 욕구 충족의 한 가지 방법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1세기 들어 국내의 속옷 시장에 새로운 분야를 구축해 가고 있는 T-팬티 현황과 디자인을 알아봄으로써 현대 여성들의 미의식을 고찰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T-팬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쟁력 있는 T-팬티 디자인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속옷의 일반적인 고찰과 국내 속옷 시장 현황 고찰을 하였다. T-팬티는 팬티의 종류 중 솟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팬티의 뒤판이 없이 끈으로 처리된 것으로 패션화된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브랜드에서 T-팬티가 필수로 보여지고 있으며, 섹시한 스타일뿐 아니라 기본적인 디자인으로도 보여져서 일반 팬티처럼 선호하는 층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매장을 늘리고 있으며, 「빅토리아 시크릿」과 「캘빈 클라인」같은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온라인, 각종 쇼핑몰, 컬렉션으로 다양하게 영역이 확장하고 있다.

국내 T-팬티의 조형성은 모던 페미닌 이미지, 모노보즘 이미지, 이상적 나르시시즘 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모던 페미닌 이미지는 현대적인 감각에 귀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한 것으로 형태는 Thong, 소재는 기능성 소재, 색은 노랑, 분홍, 장식은 레이스, 리본이 나타난다.

27) 김민자, op. cit., p. 84.

둘째, 모노보즘 이미지는 신체 중에서 엉덩이의 곡선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형태는 G-string, V-string, 소재는 시스루, 호피 무늬 소재, 색은 검정, 빨강, 장식은 브레이드, 망사 레이스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상적 나르시시즘 이미지는 인간의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를 여성들이 옷으로 치장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허영심을 충족하여 자기 자신의 이상적인 욕구를 겉으로 표현하는 이미지이다. 형태는 T-팬티의 모든 형태가 나타나고, 소재는 쉬폰, 조젯, 색은 강렬하고 고급스러운 디프 톤, 장식은 비즈, 금속, 스팅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능성과 더불어 현대 여성들의 미의식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디자인되고 있는 T-팬티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부각되어 국내 T-팬티의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T-팬티 디자인의 발상과 현대 여성의 미적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속옷 산업 현장에서 상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인숙 (1997). 성인 여성의 자아개념과 속옷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미란 (2006). *이너웨어디자인*. 서울: 경춘사.
- 권수현, 이정희, 이준원, 이재경 (1996). '외모 가꾸기'에 대한 여성학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논집* 30권.
- 김민자 (2004). *복식미 엮보기 복식미학강의 1,2*. 서울: 교문사.
- 김정하 (2006). 여성용 브리프의 패턴설계.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애, 이연희 (2003). 중세 남녀 속옷의 특성. *복식문화연구*, pp.263-274.
- 라사라 교육개발원 (1991). *복식사전*. 서울: 라사라(라사라 패션 정보).
- 변미연, 이연영, 이인성 (2006).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의 페티시즘에 관한 페터다임. *한국생활과학회지* 15권 6호.
- 안나영 (2007). 20~30대 소비자의 의복태도에 따른 속옷 구매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아 (1998).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성인여성의 겉옷·속옷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례 (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겉옷화 현상. *복식* 35권 1호.
- 이상례 (2002). 속옷미학. *복식* 52권 1호.
- 이의정, 김소영 (2001). *언더웨어*. 서울: 교학연구사.
- 이정옥 (1999).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 조규화, 구인숙, 금기숙 (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 최원 (1995). 서양 여성 속옷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명숙 (1990). *복식용어사전*. 부산: 유신문화사.
- 한명숙 (1997). 복식명칭의 활용론적 연구(II) -속옷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5권 1호.
- 한명숙 (2003). 속옷 착용에 따른 전통복식의 실루엣에 관한 연구. *배화논집* 22집.
- Freud, 윤희기, 박찬부 옮김 (2004).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프로이트 전집 11*, 서울: 열린책들.